



하 상 옥

포스코(주) 상무

## 직무발명 활성화가 지재권 보유 지름길

**“중**업원의 창의적 활동 활성화 덕분에 최근 5년간 국내출원 7,982건, 국내등록 1,531건 및 미국 등 65개국 국외출원 507건, 등록 403건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철강 산업 특성상 직무발명 진흥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상옥 포스코 상무는 지속적인 직무 발명 진흥정책을 추진, 포스코가 세계 최우수 철강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했다.

하 상무는 철강 제품 생산 필수공정인 압연(壓延)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連研續 압연기술(Endless Rolling) 개발을 진두 지휘, 독자 개발에 성공하고 실제 적용을 통한 상업 생산을 앞두고 있다. 이 기술은 기존의 압연기술 대비 생산능력과 품질수준을 대폭 향상시킨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또 자동차강판 개발을 주도적으로 추진, 내충돌성, 성형성, 고강도 특성을 갖는 세계 최초 자동차용 TWIP(Twinning Induced Plasticity)강을 개발했다.

하 상무의 이런 성공에는 국내 최고 수준의 직무발명 보상 제도를 수립, 시행한 데서 비롯됐다. 보상제도로는 직무발명신고 기념품 지급,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적보상 등 국내 여타 기업보다도 최고수준의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운영해 최근 5년간 12,083건에 26억 6,258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종업원들의 직무발명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우수발명자에 대한 우수특허 포상제도를 운영해 1건당 최고 500만 원의 부상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특허전문 특별교육을 이수한 베테랑 특허전담자 16명을 양성해 중앙집중형 특허전담조직을 구성, 기술 분야별 연구, 생산현장에 배치시킴으로써 특허 발굴, 특허맵 작성, 특허명세서 작성지원 등 발명현장에서의 발굴활동에 주력하도록 뒷받침했다. 특히 연구부서장-특허전담자-전담변리사 3자 링크체제에 의한 특허맵을 테마 당 2~3개월에 걸쳐 90테마를 작성, 연구개발부서에 제공함으로써 연구방향제시 및 중복연구방지에 힘썼다.

특허업무의 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특허업무 전산화에 힘쓴 결과, 기존의 키워드 입력방식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 발명자가 신고한 기술 내용을 시스템이 요약하고 특허문서 특유의 구조를 개선, 발명자가 신고한 기술내용을 시스템이 요약하고 특허문서 특유의 구조를 해석 유사기술을 검색하는 지능형검색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회사 특허시스템에 탑재 활용하고 있다.

또한 POSCO에서는 특허를 돈 가치로 환산해주는 특허기술평가시스템도 개발해 현재 운영중에 있는 등 특허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전산화 투자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종업원의 창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함으로써 국가 경제 및 기술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